

# 국내 보안인식 결여가 해킹 경유지로 전락시켜

## 기업 피해사례 급증...악의적·의도적 해킹 증가

해가 지날수록 해킹 피해 사고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피해 기관도 기존의 대학 위주에서 대학, 기업, 비영리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해킹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해킹 경로 역시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해킹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국외에서 발생하는 해킹 정보의 부족이 문제점으로 제기 되고 있다.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센터에 설치된 '해킹바이러스상당지원센터'에서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해킹 피해건수는 지난 97년 64건에서 98년 158건, 99년 572건, 2000년 1,943건으로 해마다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법이 점점 지능화 되고 있으며, 정보시스템 운영자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5월까지의 해킹피해 사례를 기관별로 보면 일반 기업체가 전체 건수의 40.7%인 92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시스템이 해커들의 주공격 대상으로 조사됐다. 지난 1999년까지는 기관별 해킹 사례는 대학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었으나, 2000년도에 기업이 대학의 4배 가까운 해킹 사례를 나타내며, 지속적으로 기업의 해킹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중소기업체가 정보보호분야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표-1〉 연도별 해킹 피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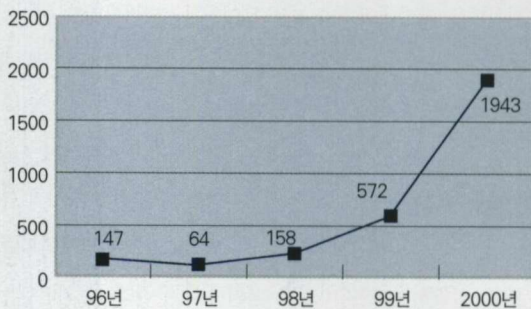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5월	전체	1~5월
건수	147	64	158	572	604	1,943	2,278
증감률(%)	-	-56.5	146.9	262.0	-	240.7	277.2

자료출처 한국정보보호센터

### 올해 전년도 동기간대비 4배 증가

더욱이 올해에는 급속도의 증가세를 나타내며 5월까지 5개월 동안 지난해 전체 피해사례보다 많은 2,278건의 피해사고가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접수된 사고건수인 604건보다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표-1, 표-2 참조).

이처럼 해킹 사례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 등 개방형 네트워크와 사용자가 계속 늘면서 해커들이 컴퓨터 자료에 접근할 기회가 많아졌고, 해커들간에 자유롭게 빠른 정보교환으로 해킹



〈표-2〉 연도별 해킹 증가 추이

〈표-3〉 기관별 해킹 피해 현황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1~5월
대학(ac)	95	32	80	262	260	216
기업(co)	46	25	69	248	818	927
정부기관(go)	-	1	1	-	-	-
비영리기관(or)	2	1	2	22	6	28
연구소(re)	-	3	4	11	3	5
기타	4	2	2	29	856	1,102
합계	147	64	158	572	1,943	2,278

자료출처 한국정보보호센터

있으며, 정보보호 인식과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정보보호 업체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오늘날의 해킹은 과거의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한 행위에서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기업의 정보를 빼내기 위한 해킹 행위로 변화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학이 216건으로 전체 9.4%, 비영리기관이 28건, 연구소 5건의 피해사례가 있었으며, 기타 기관이 1,102건으로 전체의 48.3%를 차지하여 해킹 피해 기관이 과거에 비해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해킹 경로로는 국내에서 국외로의 해킹 시도와 공격이 95건이고, 국외에서 국내는 466건에 이르고 있어 확인

되지 않은 해킹 사례들은 대부분 국외 해커들의 행위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한국을 해킹 경유지로 삼는 국외 해커들의 사례가 지난해 261건에서 올해 들어서만 도 297건으로 지난해 보다 높은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례의 급증에 대해 기업의

보안 담당자는 “아직은 국내의 경영층에서 보안 인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해외 해킹 정보에 대해서도 접근이 늦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기업의 현실이다”라고 토로했다.

### 국내 해킹 사례는 ‘소강상태’

반면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킹 사례는 지난해 328건에서 올해 5월까지 66건으로 소강상태를 나타내고 있다(표-4 참조).

또한 해킹 피해의 예방에 대해 정보보호센터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해킹 피해를 막으려면 대규모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갖춘 기관·기업·단체에서는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등을 반드시 설치하고, 효과적인 해킹 방지 프로그램을 사용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해킹이 단순한 피해 사고에서 벗어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국가 안보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국가적 테러 행위라고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

〈표-4〉 해킹 경로 현황

구분	해킹 경로					합계
	국내→국내	국내→국외	국외→국내	국외→국내→국외	미확인	
1997	34	(9)	7	4	19	64
1998	15	(18)	34	89	20	158
1999	48	(24)	91	183	250	572
2000	328	(84)	273	261	1,081	1,943
2001. 1~5월	66	(95)	169	297	1,746	2,278

\*우측의 합계는 '국내→국외' 분을 제외한 것임

자료출처 한국정보보호센터

